

제28차 세종기지 생물학 월동대원 광주 출신 안나씨

# “매혹의 땅 남극, 무엇보다 사랑했다”



임경림씨가 딸 안나를 위해 그린 '위풍당당'



전시회가 열리는 베토벤에서 포즈를 취한 안나씨와 엄마 임경림씨.

## 엄마 임경림씨 '베토벤'서 전시회 열어 딸 응원

## 우주인 꿈꿨던 남편, 세 살짜리 아들 육아 맡아

옛 전남도청 앞 클래식 음악감상실 '베토벤'에서는 소박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임경림씨의 문인화전이 다. 대나무 등 정통적인 문인화 소재와는 다른, 한 작품이 눈에 띄었다. '위풍당당'이라는 글귀가 적힌 '펭귄'이다.

이 작품은 임씨가 남극에 가는 딸 안나(29)씨에게 힘을 주고 싶어 그린 그림이다. 안 씨는 제28차 남극세종과학기지 월동 대원으로 선발돼 2016년까지 세종기지에 머물며 생물학을 연구한다. 전시 안내 팸플릿에는 안나씨가 엄마의 첫 개인전을 응원하며 쓴 글이 실려 있었다.

전시회 개막식에서 만난 안씨는 “그 어떤 대안도 생각한 적 없을 만큼 남극을 사랑했다”고 했다.

시작은 중학교 때였다. 엄마가 보던 '내셔널지오그래픽'은 그녀에게 신세계였다. 잡지에 언급된 수많은 극한지와 오지 사진은 그녀를 매혹시켰고 그 중에서도 '남극'에 푹 빠졌다. 15년의 세월이 흘러 세살배기 아들을 둔 '엄마' 안나는 진짜 남극에 가게됐다.

안씨의 학창 시절은 다른 아이들과 조금 달랐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학원에 다니지 않았다. 전대사대부고를 지원한 이유도 야간자율 학습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다.

지구과학 등을 좋아했던 안씨는 이화여대 생물과학과를 졸업했다. 부전공은 철학이었다. 대학원은 서울대 융합기술대학원 지능형융합시스템학과를 선택했다. 순간 순간 마음이 끌리는 분야에 몰입했고, 열정과 성의를 다해 공부했다.

이화여대 지도교수였던 최재천 교수는 남극행을 전한 안나씨에게 “학술적으로 의미있는 연구도 좋지 않

상과 다른 환경에서 사람이 어떻게 변화하는 지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고 오라”는 덕담을 건넸다.

2013년 당연히 합격할 것이라 생각했던 첫 도전에 실패했다. 꼭 실행당한 것같은 기분에 힘들었지만 또 다시 시작했다. 서류면접을 통과하고 체육대 입시학원에서 과외도 받았다. 합격한 후에는 GPS 사용법, 무선통신, 응급 처치, 조난대처법에 대한 교육 등 생존에 필요한 이론과 실습훈련을 마쳤다.

남극을 향한 그녀의 준비는 오랫동안 계속됐다. 일 본에 학회 차 갈 때는 일행들과 헤어져 홀로 홋카이도까지 달려가 유빙을 보고 왔다. 소아과 의사 고경남씨가 쓴 '남극산책'을 감명깊게 읽은 후에는 편지를 쓰고 직접 병원을 찾아가다. 남극으로 떠난다는 소식을 들은 고 씨는 “내 책을 보고 남극에 가는 꿈을 꾸는 사람은 많이 만났지만 직접 그 꿈을 이룬 이는 안나씨가 유일하다”며 격려했다.

석사 학위 논문 '행복한 남극 월동 디자인'은 남극에 다녀온 이들과 관련 학자들을 인터뷰했다. 국내는 물론이고 일본, 뉴질랜드, 독일 등 해외까지 찾아가 사람들을 만났다.

“남극에 직접 다녀온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극에 대한 꿈이 더 커졌죠. 처음에는 설레지만 해도 잘 안뜨는 환경이 계속되다보면 기본부터 쳐잡고 해요. 장비고 기지에 비하며 세종기지는 리조트라고들 부르지만 팍팍하기는 마찬가지죠. 1년 가까이 그런 생활을 하다보면 팀웍이 중요하죠. 한 외국인 대원은 어떤 사람이 짓가라질 하는 모습만 봐도 너무 싫었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서울대 박사 과정 중 만난 남편 이민규(32)씨는 대한민국 우주인 선발대회에도 참여한, 우주를 꿈꾸는 이였다. 안씨의 남극행을 두고 시택 어른들은 말했다. “남극은 우주보다 가깝네.” 월동대원 면접에서도 가장 큰 핸디캡이었던 육아는 진정 부모와 남편의 몫이 됐다.

안씨는 낯선 것에 대한 도전과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다. 동생 이름은 5살 때 그녀가 지었다. 조산대 조교로 일하고 있는 동생은 안비(24)씨. 자기 이름과 합치면 '나비'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글 쓰는 것도 좋아한다. 서울대 홍보팀이 만드는 계간지 '서울대 사람들'의 편집장이며 서울대 문화상 시 부문 수상자이기도 하다. 남극을 소재로 한 동화 '겨울의 김수박'을 쓰기도 했고 올해 신춘문예에도 도전했다.

안씨는 친구들이 학원에서 공부하는 시간에 '베토벤'에서 클래식 음악을 들었다. 광주에 인연이 없던 엄마가 늘상 베토벤에 데리고 다녀서다. 부르크너의 음악을 좋아하는 그녀는 베토벤에서의 시간이 지금의 자신을 만든 큰 요인 중 하나라고 했다. 남극행을 앞두고 처음 찍는 가족 사진도 스튜디오에서 찍는 대신 수많은 추억이 담긴 베토벤에서 '꼭' 찍고 싶었고, 그렇게 했다.

“안나가 꿈을 꾸고 그걸 이루어 가는 과정을 모두 지켜본 엄마 입장에서 참 대견하죠. 제가 그림 공부를 시작한 게 어찌보면 안나 덕입니다. 안나가 중학교 1학년 때 방과 후 학부모 교실에서 처음 그림을 접했거든요. 남극으로 떠나는 안나에게 힘을 주고 싶었어. 건강하게 잘 다녀오라는 마음도 함께 담아 전시회를 열게 됐습니다.”

엄마는 곡성 전남 곳곳을 돌며 숨을 구입해 안나씨가 세종 기지에서 쓸 따뜻한 목화 솜이불을 지었다. 남극으로 떠나며 안씨는 9분 50초 분량의 대학원 논문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기자에게 보냈다. 남극에서 하고 싶은 일이 담겨 있다고 했다. 영상 속에서 만나는 '안나의 꿈'은 다른 이들의 가슴도 뛰게 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이재효 작 '0121-1110=114014'

## 나로호 발사성공 2주년 기념전

항우연-고흥 남포미술관 내년 1월18일까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조광래, 이하 항우연)과 고흥 남포미술관(관장 광형수)은 내년 1월18일까지 고흥 나로 우주센터 우주과학관에서 나로호 발사 성공 2주년을 기념해 특별전시회를 개최한다.

우주과학관은 우주과학을 전문적으로 전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으로 부지 8만7000㎡, 건축 연면적 9000㎡ 규모에 32종류의 작동체험 전시물을 포함한 모두 90여 종류 우주과학 전시물이 상설 전시되고 있다.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김세중, 윤종석, 이재삼, 이재효, 최태훈, 한호석, 황선태 작가 등 7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우주라는 거대한 공간 속 크고 작은 별들처럼 각기 다른 작품 세계를 보여준다. 특히 이번 전시는 과학과 자연, 예술을 한곳에서 만날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한편 항우연은 이번 특별전시회 기간 동안 대형 영상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한 우주과학관 다목적홀에서 3D 영화를 무료로 상영할 계획이다. 문의 061-830-8700. /김경민기자 kki@



## 황재형 작가와 미술캠프 참가자 모집

31일까지...태백미술연구소-한희원씨 공동진행

‘유명 작가와 함께하는 10일간의 예술캠프’

태백미술연구소(소장 황재형)와 서양화가 한희원씨가 광주시 남구 양림미술관에서 진행하는 ‘겨울미술캠프’ 참가자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황재형 회화의 조건-복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겨울미술캠프는 내년 1월 8일부터 17일까지 9박10일(오전 9시~오후 5시) 동안 진행된다.

이번 캠프는 한국의 대표적인 민중미술 작가로 불리는 보성 출신 ‘광부화가’ 황재형 작가가 태백미술연구소 소속 미술교사들과 함께 재능기부 형식으로 진

행할 예정이다. 앞서 황 작가는 지난 7~8월 광주 해외문화예술공간에서 미술 캠프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캠프는 ‘모두에게 평등한 예술교육’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서의 예술교육’ ‘삶의 소중한 보석인 예술교육’ ‘더불어 나누는 예술교육’ 등을 목표로 미술 이론과 실습 교육을 함께 진행한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수강인원은 선착순 50명이다. 신청은 전화로 하면 된다. 참가비는 50만원으로, 실습재료비와 미술 교사들의 체류비용 등으로 쓰인다. 문의 010-2162-7772, 033-552-9926. /김경민기자 kki@

다가오는 2015년 새해에도, 고객님의 한분 한분을 사랑과 정성을 다하여 모시는 **금수장 호텔 아리랑 하우스**가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www.geumsoojang.com

신년 메뉴 **떡국**개시 정성을 가득담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0가지 외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너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맞춤형 출장도시락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1·2층 이태리가구 | 3층 통원목가구 | 4층 모던가구

**이태리가구 혼수가구 특가전**

SINCE 1990 **홍스케이스** www.hong79.com 광주 동구 장동 58-15 ☎ 1899-0240